

세종 중앙공원 제안

1. 목적 : 공원은 세종시가 없어지는 날까지 세종시민들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도시이자 준 수도격인 지역의 대표 공원이므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여 제안을 합니다. 일단 조성해 놓으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공구조물’인 청사·호수공원·국립도서관·대통령기록관 등과 대비되어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라는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자연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백 년을 짓고 있는 스페인의 성당을 보듯이,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나브로 스스로 가꾸어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추후 국회나 청와대가 내려올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국제교류를 위해 오는 외국인에게도 많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2. 문제점 : 이용할 시민의 의견 수렴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일정에 맞추어 설치 후, 세종시로 넘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제안 방향 (2가지)

- 현재를 보완
- 책임주체를 시민으로 전환

4. 공원의 개념

- 관광지가 아니라 휴식공간이다.
- 꽃 박람회처럼 한 번 왔다가 (볼 것 다 봤다고) 더 이상 찾지 않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¹⁾.

- 지나가다가도 들리는 곳이어야 한다.
- 넓은 땅이 부여되어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국제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공간(넓은 맨땅)이 되어야 한다.
- 공원을 가로지르는 물다운 물이 없으므로 키 큰 나무를 최대한 많이 심어, 인공 그늘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능하다면 호수공원의 2곳에서 물을 끌어 공원을 통과하여 금강으로 배출하자.
 - 호수공원 북쪽 => 1단계지역 => 국립수목원 => 2단계지역 => 금강
 - 호수공원 남쪽 => 1단계지역 => 2단계지역 => 금강2단계 경계에서 금강으로 나가는 부분에는 둥글둥글한 돌을 깔 개울을 만들어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룰 모델은 “남이섬” 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설명회 때, 행복청은 “남녀노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는) 개념” 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볼거리는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이 방침이 많은 시설을 추가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이섬이 룰 모델이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남이섬은 “남녀노소” 등 누구나 좋아하는 곳으로 볼거리(시설물)가 없는데도, 여러 번 와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 울창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키 큰 나무들,
- (잡초가 있는) 맨 땅,
- (걸어 다니다가 언제나 쉴 수 있는) 아주 많은 의자,
- 중간 중간에 서 있는 조각상,
- 몇 개의 식당

이 고작입니다.

장점은

- (관광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쉬러 가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고,

1) 국립생태원을 만드신 최재천 박사의 강연을 듣고 생각난 것입니다. 그 분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종 중앙공원은 생태를 목적으로 하므로 좋은 방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연을 위해 틀에 맞추어진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서, 공연자들은 아무 공터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무대를 꾸미고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공연도 예약하고 보러가는 곳 아니라, 쉬러 와서 걷다가 자연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 흙 땅이므로 자전거가 (빠른 속도도 내지 못하지만) 타다가 넘어져도 거의 다칠 일이 없습니다.
- 배고프면 내부에 있는 특색 있는 식당(70년대 도시락)에 가서 이용합니다.

즉 시원한 그늘 및 의자를 제공하는 곳이며, 걷다가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가는) 공원입니다.

누구나 2시간 이상을 계속 걷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기 때문이며, 공원에 온 사람은 “(하던 일에서 좀 벗어나) 휴식을 취하러 온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방문한 친인척을 모시고 편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도 찾는 곳이 공원입니다.

5. 1단계 (설계 완료) 및 2단계 (초안 완료 후 의견 수렴중)의 문제점²⁾

가. 1단계

- 산만하다. 공원의 색깔이 없다. 뚜렷한 것이 없다
(음식점에 비유하면 종류만 많은 화려한 분식점이다. 3~4가지에 메뉴에 집중하여, 자주 오는 음식점이 되어야 한다. 종합선물셋의 내용물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 이름과 시설이 매치가 잘 되지 않는다.
- 이름의 뜻을 모르겠다.(장남들광장의 ‘장남들’)
- 이름이 길다.
-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 B 등으로 병기해야 한다.

2) 햇볕이 강한 날씨일 때 대전시 만년동에 있는 ‘한밭수목원’을 4시간 정도 직접 걸어보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 2단계

공청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생략

6. 1·2단계 제안

가. 1단계

이름을 짧고 인지하기 좋게, 이름 뒤에 알파벳을 넣어 찾기 좋게...

장남들광장 => 입구(A)

어울림정원 => 12달(B)

도시축제마당 => 축제터(C)

가족여가숲 => 쉼터(D)

가족예술숲 =>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12절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이를 보는 시민이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줄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1단계에 그늘이 없으므로, 느티나무를 아주 많이 심어 그늘을
만들어 ‘그늘숲(E)’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복합체육시설 => 공놀이터(F)

기타 소규모 정원 이름은 한 글자로 짓기를 추천합니다.

(꽃 섬 밭 늪 숲 향 돌 돛 정 눈 별 빛 흙 풀 길 물 새 놀 들)

나. 2단계

- 공생의 뜰 (논)은 무조건 유지 - 확대 필요. 논마다 원두막 필요

(논은 수 천 년 동안, 장래에도 인간 생존을 위해 밥을 제공하며 함께 한 터
이고 배울 것도 많으며, 맹꽁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

벼를 경작하다가 태풍으로 쓰러지는 것도 자연현상이며, 소출이 안 나오고 병충해가 있는 것도 자연현상입니다.

겨울에 연날리기 · 썰매 · 쥐불놀이 · 자치기 · 어름위에서 팽이놀이 등 알아서 놀기 좋으며, (금)개구리는 동면중이므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 울창한 숲 개념으로 조성
- 유치원생은 흙 놀이를 좋아합니다. 이런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세종시 소생활권이 보이는 세종탑 건설 (공원하면, 탑 이미지가 떠올라 세종시를 연상시킬 정도의 웅장하고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탑이어야 하고, 국제 공모 필요). 탑이 있으면, 간이 전망대 수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7항 제안과 연계합니다.

다. 기타

계획을 완료했으나 (시민들의 많은 요구 등으로) 대안을 찾지 못하면, 우선은 유보지로하고 꽃나무 등을 심어 시민에게 판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7. 가장 많이 이용할 세종시민이 만들자.

시설물에 마음을 뺏기고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 내 마음을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생태라면 자연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인공물을 가미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공간에 잔디만 깔려있는 상태가 좋은 지, 다양한 시설이 들어차 있는 것이 좋은 지...

빈 공간은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들어찬 곳은 마음의 여유를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 후에 세종시에 넘겨준다고 들었습니다.

(통상의 절차라는 것은 알지만) 집을 사용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집을 짓는 것이 합당하지, 남이 지어준 틀을 빌려서 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세종시민이 이용할 집을 사업자가 그의 입맛에 맞게 짓고 일정에 맞추어 건설 후 넘기는 것인데, 공원에 어떤 애착이 가겠습니까.

단독주택처럼 가족이 요구한 대로 건축을 해야 이용하는 가족이 만족합니다.

(행복청이 준비한 것을 보면, 아주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인공물의 배치·인공물의 수량·인공물의 화려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인공물은 이용할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행복청의 관행·일정·의무 등이 배합된 결과물입니다³⁾.)

이에 제안합니다.

세종시민이 공원을 만들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세종시에 공원조성 권한 및 책임을 넘기기를 제안합니다.

세종시가 없어질 때까지 시민 및 그 후손이 함께할 공간이기 때문이며, 지방자치 시대에도 맞는 과정입니다. 설명회 3회로 끝낸다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며, 욕은 행복청이 아니라, 공원조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세종시가 먹을 것입니다. 관청에 대한 불신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청은 예산 및 공사비 관리·감독을 하고, 여러 사안이 종합되어 국가가 받드

3)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드는 시설물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국가의 그 동안의 노하우에 의해 하면 되지만, 공원처럼 (자연에서 출발하거나) 실제 이용할 사람 100명의 의견을 듣는 것이 뒷말이 없으니까 국가에게도 더 좋습니다.

‘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00억 들인 공원, 애물단지로 전락”이라는 뉴스를 접합니다. 이용할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선택하게 하면 관청은 이런 뉴스를 들을 일도 없을 텐데,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시 유지해야 할 공간(공생의 뜰)은 세종시에서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두는 것입니다.

계획된 예산만 세종시에 넘기고 그 이상은 주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세종시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급할 것이 없는 세종시는 시장 및 의회 주도하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애정이 가는 공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유지보수 등도 고려해 설계를 할 것입니다. 한정된 기간 내에 조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성기간은 5~6년이지만 사용기간은 500~600년입니다.)

행복청은 눈치 볼 사람이 없지만, 민선 시장은 시민의 의중을 헤아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은 긴장하며 추진할 것이므로 행복청은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세종시로 넘기기 어렵다면 1차 설명회시 어느 분이 제안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완공일정을 4~5년 뒤로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몇 년 후부터는 세종시가 운영·관리를 해야 하므로, 본 제안은 세종시와 세종시 의회에도 참고로 전달하겠습니다.

첨부 : 개인적인 제안

2018. 8. 29

김용호

첨부

개인적인 제안

제안1) 세종 호수공원 입구부터 햇무리교까지 4차선 도로, 가치 있는 거리 조성⁴⁾

현재 : 세종중앙공원을 조성하며, 카페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치 : 금강 조망, 호수공원 · 중앙공원 · 수목원 조망 · 용모양 정부청사 조망, 여러 박물관 조망, 전월산 조망, 신도시 조망

제안 이유 : 세종시는 수 십 년 후에 수도가 될 공간입니다. 청와대 · 국회가 내려 올 것입니다.

외국 국민이 와서 회담이나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많은 일정을 보낼 공간이 될 것입니다. 즉 귀빈용 숙소 및 리셉션 장소 · 회담장소 · 국제 테마 행사 공간으로 만들기를 제안합니다⁵⁾.

호수공원 · 중앙공원 및 수목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공간을 상기의 장소로 전환하여도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공원 땅을 조금 더 사용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가 교류 차원에서는 많은 득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답답하지 않도록 멋진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

주변과 어우러져야 하므로 국제 공모하기를 추천합니다. 국제공모에 의한 건축

4) 5월에 세종시 아이디어 수집시 제안했던 사항인데, 이 공간은 세종시가 관여할 곳이 아니라 그런지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를 위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확보해 놓아야 할 터인데...

5) 유치 가능한 국제기관을 파악하여 건립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로서, 가칭 “국제 온난화축소 연구회”, 또는 “국제 제2수도 연구회 (국가별로 수도 과밀화로 인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국가들이 꽤 있을 것임) 등입니다.

한옥을 국민 숙소로 활용하고, 나라별 대표적인 서민용 집을 건립하여, 일반인(신혼부부나 가족들 행사시)들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시 재정 및 공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물이나 공간은 (타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므로) 반드시 오래도록 효과를 봅니다⁶⁾.

1차 설명회시 제안한 세종탑⁷⁾은 전망대의 역할을 많이 하므로 1단계 · 2단계 · 국립수목원이 만나는 지점에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전망대(음료판매가능)와 최고 전망대, 2곳이 필요하며 매일 저녁 15분씩 하늘 · 금강 · 전월산을 향해 레이저쇼를 제공하면 좋을 것입니다. (‘세종탑에 가보지 않으면 화성인이다’ 할 정도의 멋진 탑으로)

제안2) 나무 등을 추천해 봅니다.

느티나무 (시원함의 대명사. 가지가 사방으로 잘 뻗은 것으로 엄선)⁸⁾

등나무 (시원한 등나무 2차선 크기의 터널 조성)

버드나무 (운치 있음)

대나무 (사방으로 너무 뻗어 나가지 않도록 경계를 만들어 조성)

아카시아 (향기, 다 큰 나무는 공원의 의자로 사용)

국어책 시에 등장하는 머루 · 다래 · 으름 · 고욤 · 능금 · 돌배 · 개암 · 모과 나무 등의 수종을 많이 심어,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제안3) 주변이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예, 대나무 숲 가운데)을 만들어 밤에 별(은하수)을 볼 수 있는 곳을 조성해 주길 바랍니다. 멀리 강원도 산속에 가지 않고도 별을 볼 수 있다면 최고가 아닌가 합니다. 끝.

6) 2-3 생활권의 국제공모로 설계한 첫마을은 언제 보아도 지루하지 않은 훌륭한 곳입니다. 그런데 2-2블록 생활권은 (행복청의 디자인에 대한 세밀한 통제가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나) 건설사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해서 그런지 디자인 면에서 멋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첫마을 공모할 때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모는 간접적이지만 곧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 과정입니다.

7) 탑이란 누구나 쉽게 하늘에서 그 지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8) 대전 “오 월드” 에 가면 뱃나무를 심어 놓아, 그늘이 없습니다. 놀다보면 쉬어야 하는데, 그늘을 위한 나무는 느티나무가 가장 좋습니다. 사방으로 잘 뻗은 것일 경우에 한합니다.